

- 주요 뉴스: 연준 의장, 인플레이션 억제에 좀 더 적극적인 통화긴축을 고려할 방침
 - EU, 러시아산 원유 및 가스 수입 금지 검토, 최종 합의 여부는 미지수
 - ECB 총재, 당분간 연준과 유사한 통화정책 시행은 불필요
 - 중국 인민은행, 대출우대금리(LPR) 동결, 2/4분기 추가 인하 예상
- 국제금융시장: 미국은 파월 의장의 통화긴축 강화 가능성 시사 등이 영향

주가 보합[-0.0%], 달러화 강세[+0.3%], 금리 상승[+14bp]

 - 주가: 미국 S&P500지수는 에너지 부문의 강세와 파월 의장의 때때로 발언이 상충
유로 Stoxx600지수는 미국 증시와 유사한 이유 등으로 보합 마감
 - 환율: 달러화지수는 연준의 적극적인 금리인상 전망 등이 반영
유로화와 엔화가치는 모두 0.3% 하락
 - 금리: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 확대 등이 주요 원인
독일은 미국 국채시장 유사한 이유 등으로 10bp 상승

※ 원/달러 1M NDF환율(1220.1원, +3.5원) 0.3% 상승, 한국 CDS 상승

3/21일 3/18일 전일대비					3/21일 3/18일 전일대비				
주가	미국	4,461.2	4,463.1	-0.04%	국채 금리 10y	미국	2.29%	2.15%	14bp
	유럽	454.79	454.60	0.04%		독일	0.47%	0.37%	10bp
	중국	3,253.7	3,251.1	0.08%	CDS 5y	한국	29bp	28bp	1bp
	일본	휴장	26,827	휴장		중국	60bp	54bp	6bp
	한국	2,686.1	2,707.0	-0.77%	위험 지표	EMBI+	-	539	-
환율	달러지수	98.48	98.23	0.25%		VIX	23.53	23.87	-1.42%
	유로화	1.1016	1.1051	-0.32%		WTI유	112.12	104.70	7.09%
	엔화	119.47	119.17	-0.25%	원자재	구리	470.2	473.1	-0.61%
	위안화	6.3559	6.3612	0.08%		금	1,935.9	1,921.6	0.74%
	원화	1,216.3	1,207.6	-0.72%					

주: 주가는 미국 S&P 500, 유럽 Stoxx 600, 중국 상해종합, 일본 닛케이225, 한국 KOSPI.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
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.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(+/-는 절상, 절하). 자료: 블룸버그

금일의 포커스

■ 연준 의장,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좀 더 적극적인 통화긴축을 고려할 방침

- 파월 의장은 0.5%p의 금리인상도 준비되어 있으며, 인플레이션이 과도하게 높은 상황이기때문에, 약간의 경기둔화를 감수할 정도로 금리수준을 높일 것이라고 언급. 또한 필요에 따라 중립 수준을 넘어 단호한 긴축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
- 연준은 금리인상을 통해 수요 둔화를 유도하고 있지만, 경기침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. 반면 경기 연착륙을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지만 통화정책은 외과수술과 같이 정밀한 것은 아니라고 지적
- 애틀랜타 연은 보스틱 총재는 금년과 내년 각각 6회, 2회의 추가 금리인상이 가능하며, 높은 인플레이션의 억제가 가장 큰 관심사라고 발언. 다만 상당한 수준의 경제 불확실성으로 적극적인 금리인상의 확신이 약화되고 있다고 진단
- Wealthsire Advisors의 Oliver Pursche는 파월 의장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계감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고 평가. 다만 연준은 이전에 강조한 것처럼 향후 공개되는 경제지표에 따라 통화정책을 결정할 것으로 전망

글로벌 동향 및 이슈

■ 미국 백악관, 중국의 러시아 지원에 대응하여 유럽과 협력을 모색

- 백악관 관계자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의 불합리하고 부당한 우크라이나 침공에 직면하여 EU의 동맹국들과 함께 대응책을 준비할 것이라고 언급. 또한 러시아 제재 관련 미국과 유럽의 차이가 점차 축소되고 있다고 평가

■ EU, 러시아산 원유 및 가스 수입 금지 검토. 최종 합의 여부는 미지수

- 외무장관 회의에서 해당 조치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착수. 관련 소식으로 WTI 선물 가격은 7.1% 상승. 다만 EU의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가 매우 높은(가스 40%, 원유 25%) 상황임을 고려한다면, 이와 다른 주장이 제기될 가능성도 존재
- 러시아 크렘린궁 페스코프 대변인은 EU가 러시아산 에너지 금수 조치를 취한다면, 세계 에너지 시장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역내 에너지 균형에도 타격을 줄 것이라고 경고. 한편 러시아-우크라이나 간 정상회담에 특별한 진전은 없다고 언급

■ ECB 총재, 당분간 연준과 유사한 통화정책 시행은 불필요

- 라가르드 총재는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경제 영향은 국가마다 다르다며 해당 언급의 이유를 설명. 특히 지정학적 원인 등으로 미국보다 유럽에 미치는 경제 충격이 훨씬 크며, 물가는 장기적으로 디플레이션 국면에 진입할 수 있다고 전망
- 데 퀴도스 부총재는 인플레이션의 2차 영향 확인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. 한편 파생시장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영향에도 불구하고 마진콜 급증 등의 현상이 나타나지는 않고 있다고 평가
- 독일 중앙은행 나겔 총재는 인플레이션이 예상 경로를 유지할 경우, 이르면 연내에 금리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. 다만 높은 인플레이션의 고착화 가능성이 있으며, 이러한 가능성이 현실화된다면 경제성장이 둔화될 수 있다고 경고

■ 중국 인민은행, 대출우대금리(LPR) 동결. 2/4분기 추가 인하 예상

- 1년물 및 5년물 LPR을 각각 전월과 동일한 3.70%, 4.6%로 유지. 이번 결정은 시장 예상에 부합. 다만 시장에서는 신용여건 개선, 경제성장 촉진 등을 위해 향후 금리인하 등 일정 기간은 통화완화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관측
- BBH의 Win Thin은 정부의 5.5% 성장률 목표 달성을 위해 추가적인 완화에 나설 것으로 보이며, 특히 2/4분기 또 한 번의 LPR 인하를 전망

■ 골드만 삭스, 연준은 금년과 내년 각각 7회, 5회의 금리인상에 나설 가능성

- 내년 1/4분기까지 각 FOMC마다 0.25%p의 금리인상을 시행하고, 2/4분기부터는 금리인상 속도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. 한편 정책금리를 최종 예상 목표(3.00~3.25%)까지 신속하게 높이기 위해 때로는 0.5%p의 금리인상이 필요하다고 부연

주요 경제지표

■ 주요 경제지표 발표 내용(3/21 현지시각 기준)

- 미국 2월 시카고 연은 전미경제활동지수: 0.51, 1월(0.59), 예상치(0.29)
- 독일 2월 생산자물가(전년동월비): 25.9%, 1월(25%), 예상치(26.1%)

■ 주요 경제 이벤트(3/22 현지시각 기준)

- 뉴욕 연은 윌리엄스 총재, ECB 라가르드 총재 및 데 퀴도스 부총재 강연

해외시각 및 외신평가

- **미국 연준의 인플레이션 해법, 1946년 사례를 귀감으로 삼을 필요 - Financial Times**
(For lessons on fighting inflation, skip Volcker and remember 1946)
 - 최근의 기록적인 인플레이션은 베트남 전쟁 자금 지원, 석유파동 등으로 물가가 급등한 1970년대보다 공급부족, 수요급증, 초과저축, 신용팽창 등이 원인이 된 1946년과 유사. 당시 3.1%였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9개월 만에 20.1%를 기록
 - 1970년대 연준의 대응은 단기금리에 초점을 맞춰 심각한 경기침체를 초래. 하지만 1947년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억눌렸던 수요의 정상화, 공급 증가, 대차대조표 축소와 같은 신용팽창 억제책 등을 통해 인플레이션을 효과적으로 제어
 - 이에 연준은 정책오류 위험을 줄이기 위해 가벼운 경기 침체로 끝난 1940년대 후반의 검증된 통화정책으로 인플레이션 대응이 요구
- **글로벌 원자재 시장, 증거금 인상 등으로 가격 변동성 확대될 우려 - WSJ**
(Cash Crunch Drives Wild Moves in Commodities)
 -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운송병목 및 경제제재 등으로 원자재 가격 변동성이 확대. 이에 더해 거래소 및 중개기관들은 전쟁에 따른 불확실성 회피를 위해 선물 거래의 증거금 인상을 요구. 비용 증가 여파로 일부 투자자들은 거래 규모를 축소
 - 대출기관들이 가격변동에 따른 증거금 부족을 우려하면서 투자금이 작은 투자자들은 대출 사용이 이전보다 어려워진 상황. 한편 마진콜(추가증거금 요구) 증가는 투자자의 리스크 관리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, 원자재 공급 차질도 심화시킬 가능성
- **연준의 정책 결정, 파월 의장의 경기판단과 괴리 존재 - 블룸버그**
(The Fed's Actions Don't Match Powell's Words)
- **중국 정부예금의 급증,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지출 여력의 우수성을 시사 - 블룸버그**
(China Stockpiles Record Cash In a Sign of Slow Fiscal Stimulus)
- **석유 생산업체, 고유가 불구 수요 감소 전망 등으로 증산 노력은 제한적일 전망 - WSJ**
(Oil Producers Aren't Crazy to Worry About High Prices)

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;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문의: 02-3705-6172, E-mail jsjeong@kcif.or.kr